

추 도 사

우리 민족사에서 암울하기만 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과 민족의 빛과 희망이 되어 투쟁하다 서거하신 태허스님의 43주기 추모재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태허스님께서서는 용문사에서 출가하시고, 봉선사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이후 만해스님, 손병희, 김법린선생을 만나 3·1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신분으로 3.1운동 당시 스님들을 규합하여 양주 · 양평 · 포천 등지에서 비밀리에 독립 문서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 배포하는 등, 선봉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시다 투옥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또한 스님은 중국으로 망명을 떠날 때와 중국의 민국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스님으로서의 신분으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셨습니다. 중국 각지에 있던 애국동지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펼치시며 임시정부가 통합될 때도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임시정부의 내무차장과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며 전범과 외교활동, 그리고 독립운동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우뚝설 수 있었던 것은 태허스님의 원력행(願力行)이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조국의 광복과 자주독립, 한국적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용맹정진 하셨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행복한 새나라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이라는 절체절명의 대명제 앞에서는 사상도, 지역도, 종교도 모두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태허스님의 헌신적 실천은 불교의 사상과 이념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정의와 대중복리를 위해 사회악에 맞서 싸우신 것은 바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실천한 선지식(善知識)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태허스님의 사상 속에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화엄(華嚴)사상, 선(禪)사상이 내제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는 원융(圓融)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립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회통을 지향하고 일생은 다사다난했지만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훌륭한 불교선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거 43주기를 맞아 봉행하는 추모식이 정법을 실천한 스님으로, 독립투사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원력으로 다시 피어나고, 스님이 그토록 염원하시던 평화적인 통일국가 건설이 이룩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태허스님 43주기 추모식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태허스님이 펼친 독립운동과 조국통일의 염원을 되새겨 보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태허스님의 추모재를 맞아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수행자적인 모습을 견지하면서 스님의 대원력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4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